

보도시점 2025. 10. 1.(수) 12:00 (목요일 조간) 배포 2025. 10. 1.(수)

전국 전력계통 회수물량 4.1GW 배분

- 10월 1일부터 전국 허수사업자 회수물량 배분으로 재생에너지 조기 계통접속 재개 이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전력망만 선점하고 발전사업을 하지 않는 허수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통해 확보한 전력계통 여유물량 4.1GW를 전력망을 이용하려는 실수요 발전사업자에게 배분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물량 배분은 지난 7월에 실시한 호남권 신규 계통접속 재개 조치를 전국 단위로 확대한 것으로, 당시 호남권에서는 344MW, 163개소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여유물량을 배분받은 바 있다.

전국 단위 허수사업자 회수물량(4.1GW)은 호남권 물량이 약 2GW로 가장 많으며, 이어 영남권 980MW, 강원권 679MW, 수도권 324MW, 충청권 78MW 순이다.

배분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우선 10월 1일 추진 일정 안내를 시작으로 추석 연휴를 포함한 3주간 기존 접속대기 중인 사업자에게 배분을 완료한다.

이어 10월 4주차부터는 잔여용량을 한전, 허가기관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하고, 발전허가를 받았으나 아직 망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자와 신규 발전사업 희망자에게 배분한다.

이후 잔여용량이 발생할 경우, 배전단의 접속대기 사업자에게도 배분 희망 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회수물량 배분은 현재 전국 205개 변전소가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된 상황에서, 기존 전력망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조기 접속·발전허가를 희망하는 실 발전사업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전력 당국은 향후에도 매년 허수사업자 정기점검을 추진하고, 확보된 여유물량은 상·하반기에 정기 배분할 계획이다.

* 한전 누리집: <https://online.kepcoco.kr> (누리집 정상 운영 중)

붙임 허수사업자 관리 강화 개요.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계통운영혁신과	책임자	과 장	이상현 (044-203-3930)
		담당자	주무관	김훈경 (044-203-3939)



□ (방향) 성실사업자가 적기에 연계될 수 있도록 허수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추진, 발생한 여유물량을 후순위·신규 사업자에게 배분

□ (관리방안) 정기점검을 통해 허수사업자의 망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용개시일 변경

* (근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20조, 제22조 ('24.4월 개정 完, 5.1일 시행)

○ 계약 체결 2년 이후 사업실적*이 전무한 허수사업자는 망 이용계약 해지

* 행정청에서 발급한 인허가 서류, 발전소 예정지의 토지 소유권·사용권 등

○ 이용개시일 연장의 경우 ①원하는 시점으로 변경 또는 ②신규 순번 부여

① 원하는 시점 변경 : 사업증빙자료(공사계획인가(신고서) 제출

② 신규 순번 부여 : 사업을 착수했으나 이용개시일 연장에 대한 근거가 소명되지 않은 경우

< 전력망 허수사업자 관리 강화방안 >

